



협동조합마중물문화광장은 <Letter 상.상.상>을 매월 발행합니다.
'상상상'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Letter 상.상.상>은 시민들과 조합원들의 깊은 소통의 광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7년 10월 | 통권 1호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설립취지문

‘소유와 차별의 세상’

현재 한국사회는 차이보다는 우월이, 연대보다는 경쟁이, 소통보다는 소유가 지배한다. 지금 시민들은 분열되어 더 소유한, 더 경쟁력있는, 더 우월한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그 앞에서 부끄러워한다.

소유, 경쟁, 우월이 우선이 된 사회에서는 인간다운 삶과 소통이 불가능하다. 내 생존이 우선이고, 내 말만이 진리이다. 정치는 내 이익과 상대의 제거, 그리고 권력쟁취만을 목적으로 하고 시민들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이 상황에서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불가능하고 공동체는 파괴된다.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시민교육과 사회정책을 위한 사단법인 마중물(이하, 마중물 법인)은 소유보다는 소통이, 우월보다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시민들이 서로에게 당당한 공동체를 꿈꾸어왔다. 마중물 법인은 시민교육과 사회정책을 위한 한바가지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

마중물 법인은 시민들이 서로에게 당당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조건의 형성을 학습동아리 민주주의(Study Circle Democracy)에서 찾는다. 시민들이 도처에서 일상적으로 모여 학습하고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의 형성이야말로 학습동아리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협동조합 마중물 문화광장(이하, 마중물 협동조합)은 마중물법인의 꿈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실현할 것이다. 마중물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인 마중물 문화광장 샘(이하 마샘)은 마중물법인의 정신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 학습동아리 민주주의의 광장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광장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학습, 소통, 상상의 광장인 마샘은 학습동아리 민주주의의 실험실이 될 것이다.

마샘에서 흘러나온 마중물은 대지를 축축이 적시는 풍요로운 강이 되고, 모두가 상상하고 뛰노는 바다가 될 것이다. 마중물의 토론하는 동료들이 함께 걸어갈 길은 소유와 차별의 세상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다.

발행처 |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발행인 | 김학성
편집간사 | 김지선
편집디자인 | 로로브레인 주식회사
발행일 | 2017년 10월 18일
주소 | 인천 남동구 소재역남로16번길 75 B104
전화 | 032 205 6648
팩스 | 032 232 4460
홈페이지 | www.masambooks.com
이메일 | waterforchange@hanmail.net



양심과 공감의 광장을 열자!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레터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희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은 2017년 6월 24일 발기인 대회, 2017년 7월 15일 창립총회를 거쳐, 2017년 9월 9일 마중물 문화광장 샘(마샘)을 열었고, 제가 이글을 쓰고 있는 10월 9일로 정확히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저희 협동조합은 조합원님들과 함께 놀랍고 행복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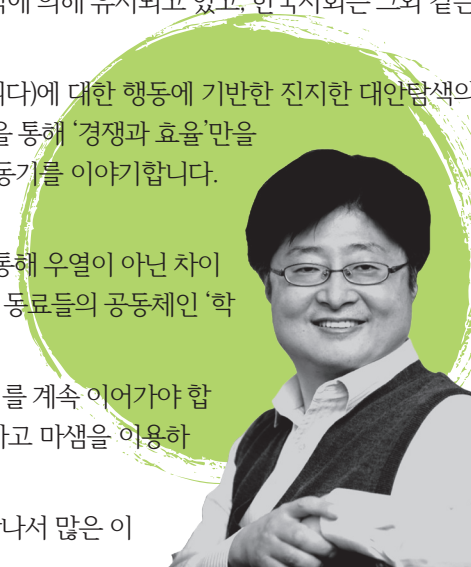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삶의 토대가 되고 있는 자본주의는 탐욕(자본의 탐욕)과 공포(자본 이외의 것들에 대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본 자체를 주기적으로 무너뜨리는 공포)라는 동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한국사회는 그와 같은 구조가 점점 극단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화되는 탐욕과 공포의 세계(이를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에 대한 행동에 기반한 진지한 대안탐색의 중요한 형태가 다름아닌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협동조합을 통해 '경쟁과 효율'만을 이야기 하는 자본주의적 기업에 대해 '연대와 참여'라는 새로운 가치와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탐욕과 공포'가 아닌 '양심과 공감'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특히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은 "시민들이 모여 학습과 소통을 통해 우열이 아닌 차이를, 경쟁이 아닌 연대를, 소유가 아닌 소통을 체험하고 실천하며 토론하는 동료들의 공동체인 '학습동아리민주주의'"(정관 제2조)라는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앞에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조합원 여러분들과 마샘을 직접 운영하고 마샘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꼭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마샘에서 같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김학성_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이사장

멋진 소풍길, 마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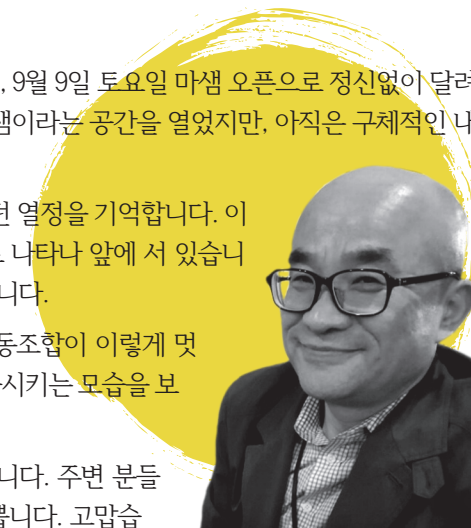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마중물이 만든 문화광장 샘의 이재필 입니다.

6월 24일 토요일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7월 15일 토요일 조합 창립총회, 9월 9일 토요일 마샘 오픈으로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3개월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의 모습으로 마샘이라는 공간을 열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과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합원들의 힘으로 서가에 책을 꽂으며 함께 오픈을 준비했던 열정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상을 일상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 앞에서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여럿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샘의 첫발을 내딛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감탄하시는 것은 어떻게 협동조합이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번 마샘의 운영을 멋지게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놀랄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으며 역사를 만들어내는 멋진 소풍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마샘을 조합원님들과 함께 만들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필_마중물문화광장샘 대표

|목요광장|

매주 목요일마다 책, 영화, 정치이슈를 주제로 토론회가 있습니다. <목요광장>은 나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만들고, 나의 생각과 나를 둘러싼 관계를 살펴보고, 새로운 나의 사람을 향한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강좌입니다.

| | | | |
|-------|------|--------------|-------|
| 10.12 | 책읽기 | <24/7 잠의 종말> | 유해숙교수 |
| 10.19 | 영화읽기 | <나 다니엘 브레이크> | 이현숙교수 |
| 10.26 | 세상읽기 | <이슈 따라잡기> | 유범상교수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7-9시
장소 | 플랫폼 마중 * 오픈강좌로 신청 없이 무료 참여

|기획강좌|

분기별 <기획강좌>가 개최됩니다. 10월에는 유범상 교수를 모시고,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로'라는 주제로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성찰하고 '함께하는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인문학 강좌를 개최합니다.

| | | |
|-------|-----------------------|-------|
| 10.10 | 1 질문 : 나는 생각하는가? | 유범상교수 |
| 10.17 | 2 성찰 : 나는 행복한가? | 유범상교수 |
| 10.24 | 3 상상 :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한가? | 유범상교수 |
| 10.31 | 4 실천 : 내 공간에서 나답게! | 유범상교수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10-12시
*장소: 플랫폼 마중 * 오픈강좌로 신청 없이 무료 참여

|제르미날|

마샘은 매주 제르미날('새싹이 돋는 달')의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재즈공연, 인문학강의가 진행됩니다.

| | |
|-------------------------------|----------------------------------------------------|
| '작은 성취' 재즈공연 | 10.13(금) 오후8-9시 |
| 'Triomenon' 라틴재즈공연 | 10.14(토) 오후8-9시 |
| '아! 나는조선인이다'-18세기 실학자들의 삶과 사상 | 일시 10.28(토) 오후4시 강사 간호운 박사『아름다운 우리 고소설』의 지음 |

장소 | 플로리안공간(마샘 광장)
참가비 | 1인 1만원 (음료1개 포함)
문의 및 신청 | 032-423-0990
010-3865-4974(문자전용)



10월의 문화광장

|심미안|

마샘에는 취미생활, 자기계발, 문화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 '나에 대한 아름다움을 찾는 눈'(심미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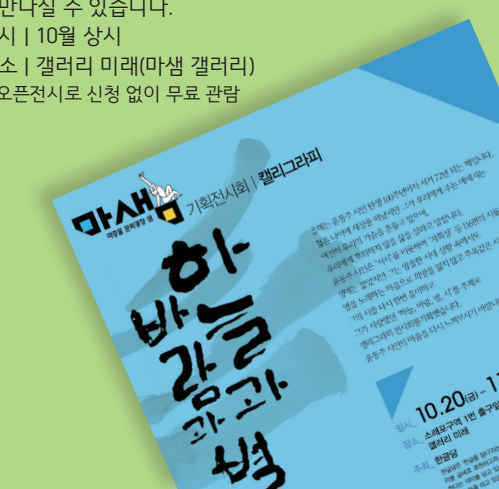
'캘리그래피'
일시 | 매주 수요일 | 오전반 10시-12시, 오후반 7시-9시
장소 | 세미나실 일상방(마샘)
회비 | 10만원(음료 1개 포함, 교재 및 재료비 별도)
문의 및 신청 | 032-423-0990 010-3865-4974(문자전용)



|갤러리 미래|

'마중물의 꿈'의 전시에 이어 갤러리서는 10월 중순부터 '운동주 캘리그래피'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운동주 캘리그래피'
올해는 운동주 시인 탄생100주년이자 서거72년 되는 해입니다. 운동주 시인이 남긴 아름다운 시를 감성적인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시 | 10월 상시
장소 | 갤러리 미래(마샘 갤러리)
* 오픈전시로 신청 없이 무료 관람





유범상 교수의 BOOK NEWS

의도된 무지에서 함께 하는 실천으로

‘의도된 무지’

나치는 2차세계대전 때 아동청소년 100만명을 포함하여 유대인만 600만명을 살해한다. 그런데 당시 평범한 독일인들은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도살의 사실을 몰랐을까? 나치에 대항하다 붙잡혀 아우슈비츠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프리모 레비는 『이것이 인간인가(프리모 레비, 돌베게, 2007)』라는 책에서 아마도 몰랐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그런데 이 광범위하게 자행된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프리모 레비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알려고 했으면 알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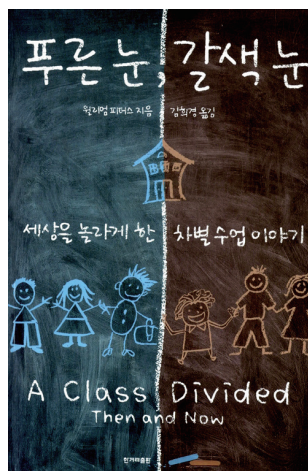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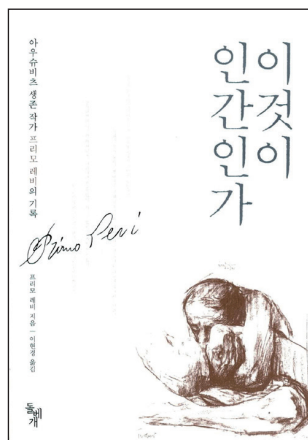
이처럼 평범한 독일인들은 철저하게 ‘고의적인 태만함’, 즉 의도된 무지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프리모 레비는 독일시민이 인간도살 사실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 래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공범자라는 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일 시민들은 무죄일까? 프리모 레비는 독일인들의 무지가 의도되고 고의적이었기 때문에 유죄라고 선언한다.

‘의도된 무지의 이면, 차별수업’

왜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을까? 『푸른 눈 갈색 눈(일리암 피터스, 한겨레출판사, 2012)』은 이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이 책은 교사 제인 엘리엇가 푸른 눈을 가진 사람과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이 우열의 관계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실제 아이들이 차별을 경험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차별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히틀러는 자신의 교실에서 유대인과 아리안족에 대한 차별수업을 진행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독일시민들은 이런 상황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소위 ‘알면 다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히틀러치하에 시민들 사이에 불문을 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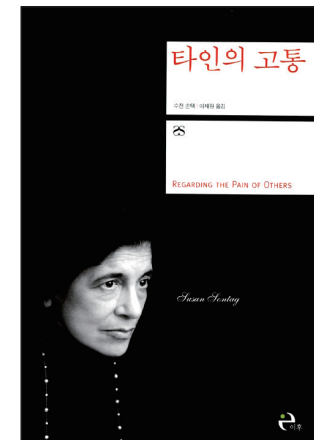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으며, 질문한 사람에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푸른 눈 갈색 눈>은 ‘제인 엘리엇의 강의실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사회의 도처에서 늘 차별 수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화두를 던진다. 그 결과 우리는 차이를 우열로 인식하고 이것이 차별로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진리를 의심하라’

세월호 유가족, 가슴기 살균제의 희생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외주 업체 노동자,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학교를 못가는 청소년,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투신자살 등 열거하기도 힘든 사고들이 연이어 터진다. 이 비극적인 타인의 고통 앞에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한다.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하다. 저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소위 연민과 안도감이다.

그런데 연민으로 비롯된 행동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충분히 표시하는 것일까? 부모가 자선단체에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가 아프리카 아이와 후원 친구맺기를 해준다고 하자. 이때 그 부모는 말할 것이다. “불쌍한 아이를 도와야 해. 그리고 너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혜와 자선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불쌍한 아이를 동정하는 자비로운 자신을 과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수전 손택은 『타인의 고통(수전 손택, 이후, 2004)』에서 연민이 아니라 공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민과 공감은 타자의 불행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연민의 감정에서 불행은 다행히도 남의 불행일 뿐이다. 노력이 부족하거나 운이 없거나 비정규직 신분이어서 맞게 된 비극인 것이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의 원인, 구조, 맥락을 문제삼지 않는다. 따라서 비극적 현실을 동정하고 모금할 뿐이다.

한편 공감은 불행과 비극에서 타자뿐만 아니라 나를 발견한다. 세월호, 살균제 가슴기, 산재사망, 공시생, 압도적인 노인과 청소년 자살 앞에서 한국사회와 대면한다. 시민의 인권과 안전보다 자본축적과 성장을 앞세운 발전국가와 재벌의 돌진적 근대화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오늘은 내가 아니지만 내일은 나일 수 있다.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내 자식, 내 부모, 내 이웃일 수 있다. 이것이 공감이다.

왜 우리는 공감하지 못하고 연민에 머무는 것일까? <푸른 눈 갈색 눈>은 사회에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차별수업의 효과인지 모른다고 말해준다. 일체의 차별현상을 정당화하는 진리는 의심해야 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프리모 레비의 비판에 그 답이 있다. 이제 알려고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은 말하고,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고, 질문한 사람에게 대답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의심은 혼자하기가 쉽지 않다. 이 차별수업이 일상적인 교육, 광고, 드라마,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께 세상을 이롭게하려는 비판하고 토론하는 동료가 늘 언제나 필요하다. 이것이 마중물과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이 광장을 일상에서 지속해야 하는 이유이다. 고독한 내가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 토론의 광장을 만들 때 연민은 공감으로 변화되고 의도된 무지는 연대적인 실천이 될 것이다.

조 합 원 광 장

이 달 의 조 합 원

이정미 조합원

마샘과 사랑에 빠지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샘 근처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조합원 이정미입니다. 마샘을 알게 된 지 한 달도 안 돼 마샘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마도 이상을 일상으로 실현해내는 마샘 조합원들의 매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게 마샘을 소개해 주신 분은 제가 세례성사를 받을 때 대모가 되어 주신 강경하 선생님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힘들다, 바쁘다 핑계대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선생님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정말 잘 사귀어야 하나 봅니다. 덕분에 이렇게 멋진 공동체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강경하 선생님을 통해 올해 마샘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협동조합 총회와 만수동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던 마샘 준비회의에 참여하면서, 마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저도 마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2017년 8월 8일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직장생활과 가정을 꾸려가면서 몸과 마음은 바쁘고 시간도 빠듯하지만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느껴졌는데, 마샘과 조합원들을 뵙는 순간 그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 오게 되면 자존감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위사람이 시키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일이라도 일단 “네”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이 곳은 그런 일상의 불합리와 적폐에 대해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나를 밀어 넣게 하지요.

마샘은 위계적이지 않고 함께 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만든 광장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와서 삶을 되돌아보고 정치적의식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샘에 가볼 것을 권유하고, 마샘과 같은 공간도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샘이 앞으로도 함께 하는 사람들과 저에게 더 좋은 삶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합니다. 마샘과 함께 발전해가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보다는 나를 둘러싼 공동체와 더불어 내가 살고 싶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곳에서!



조 합 원 사 랑 방

제1회 조합원 사랑방 개최 예정

격월로 협동조합마중물문화광장 조합원들의 정기모임인 ‘조합원 사랑방’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조합원 사랑방은 협동조합마중물문화광장과 함께 해주시는 조합원·준조합원의 나눔·소통·상상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제1회 조합원 사랑방 안내

일시 | 2017.11.02.(목), 오후 7-10시

장소 | 플랫폼 마중(강의실)

참여자격 | 조합원 · 준조합원

조 합 소 식

마중물문화광장샘 ‘마샘’ 오픈!

지난 9월 9일,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해온 마중물문화광장 ‘마샘’이 오픈하였습니다.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한 결과 서점, 갤러리, 문구/팬시, 카페, 강의실과 세미나실로 구성된 광장인 마샘이 열린 것입니다.

앞으로 마샘은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시민들의 학습, 소통, 상상의 아고락을 만들려고 합니다. 마샘과 함께,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소풍길을 기대합니다.



마샘 거리홍보

9월 22일(금)~9월 24일(일), 소래포구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를 즐기러 모이는 시민들에게 ‘마샘’을 알리고자 여러 조합원분들께서 거리홍보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뜨거운 가을 햇살과 많은 인파속에서도 조합원분들의 ‘마샘’에 대한 사랑이 더욱 빛났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책을 천원에 사는 무인 중고서점 ‘책천사’

마샘 앞 마당에는 특별한 중고서적 무인 판매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천 원 이상, 책의 가치만큼만 돈을 내고 서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책천사는 집에서 잘 보지 않는 책들, 그냥 버리기 아까운 책들을 기증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후 모든 수익금은 기부될 예정입니다!

* 기증도서는 ‘마샘’으로 책물 배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문학, 인문사회과학 도서 한정)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은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에 함께할 조합원을 기다립니다

| 조합원 가입 방법 |

아래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바랍니다.

- 이메일 | waterforchange@hanmail.net
- 팩스 | 032-232-6640
- 문자 | 010-5221-5024
- 문의 | 032-205-6648 (김지선 사무국장)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조합원 가입신청서

본인은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의 목적과 취지에 동참하고자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주소 | |
| 연락처 | |
| 이메일 | |
| 가입유형 | <input type="checkbox"/> 조합원 <input type="checkbox"/> 준조합원 ※ 해당란에 ✓ 표시해 주세요 |
| 출자좌수 | ()구좌 ※ 1구좌 이상 신청가능 |

조합원 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1회의 출자로 회원자격을 갖게 됩니다.

조합원의 1구좌는 100만원이며, 준조합원의 1구좌는 10만원입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8801-04-215706(예금주 :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201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이사장 귀하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협동조합 운영과 이용에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준조합원은 총회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고, 협동조합 이용 시 아래와 같이 혜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유형 | 서적 할인 | 문구, 음료, 공연, 강연 할인 | 조합운영 의결권 | 적립 |
|------|-------|-------------------|----------|----|
| 조합원 | 10% | 20% | ○ | 1% |
| 준조합원 | | 15% | × | |